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10

나는 소위 장애인이다. 5살 때 앓은 전신마비의 후유증으로 두 다리를 절뚝거리야 하는 3급 장애인이다. 벌써 40년을 병신(병든 몸)으로 살아온 만큼,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체험도 생생하고 할 말도 많다. 평소 신체 장애를 눈 좋은 사람과 인경 끼는 사람 간의 차이 정도도 간주하고 싶긴 하지만, 주위에서 나와 무관하게 무시로 뻔어대는 '병신'이니 '절뚝발이'니 하는 말들이 아직도 날카롭게 귀에 꽂히곤 한다.

학기초마다 나와 첫 대면을 하는 학생들이 강단으로 향하는 나에게 보내는 '일순간의 낯선 눈빛'을 의식하고는 집짓 더 여유 부리는 나를 볼 때마다, 사회 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낯선 소수자'임을 새삼 확인하곤 한다.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투지를 불태우느라 주먹 불끈 쥐었을 그런 상황들을, 이제는 가식 없는 미소로 대하곤 하니(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공부 챙길 때라야 그렇다) 불문(佛門)의 공덕이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런 저런 차이들로 얽히게 마련인 사바세계, 특히 인간 세계에

석음에서 출발한 중생의 업 노릇들이 빈틈없는 인과법으로 진행되니 말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왜 인과법을 밝히시는가? 인과와 업 짓기가 본래 잘못되었고 허망한 것임을, 그러기에 그 업의 인과를 풀어주는 법을 배는 거대한 반역(逆觀)이 아니던가? 인간을 그 허망한 인과와 틀로서 규정하지 말고, 본래의 그 빛나는 부처님 면모, 그 지혜와 자비의 본래 면목으로 새롭게 바라보라는 것(佛性論·如來藏論)이 아닌가?

인과법은 현재까지의 면모에 대한 과학적 이해이지, 지을 수 없는 과거의 죄를 묻는 것(원죄설)도 아니고, 현재의 모습들에 대한 우월 평가(결정론)도 아니다. 불교가 항상 주목하는 것은 인과와 업 골레로부터 자유로워진 생명 본래의 고귀한 가치이며, 그 가치를 실현해가려는 이제부터의 자각과 노력이다. 그런데 이 자각과 노력의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에서 해탈을 위한 교훈을 얻어내려는 반성의 자세일 뿐, 세속의 고(苦)는 박복한인가?

소수의 문제와 불교

서는 소수와 다수의 갈림이 불가피하다. 익숙함을 공유하는 다수의 눈에는 낯설기 마련인 소수. 그래서 소수인은 언제나 다수인의 부당한 편견과 선입견, 그에 따른 불이익의 일차 대상이었다. 인류의 성숙은 차이에 대한 편견의 극복 과정이기도 하다.

불문(佛門)은 소수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그 뿌리에서부터 뜯어내려 한다. 그 허망한 분별심의 요망스러운 작태를 원천에서 두려워시킨다. 그러기에 부처님 법에서는 정신지체인도 성불하고 매춘부도 성자가 된다. 다수이든 소수이든, 모두가 진리의 평등한 주제로 대접받을 수 있는 도리를 통쾌하게 펼쳐, 소수인이나 약자로 하여금 비로소 자신을 온전하게 긍정하게끔 한다.

그런데 불교계라는 현실에서는 소수인이나 약자에 대한 부당한 선입견과 편견이 의외로 널리 통용된다. 인과법에 대한 오해가 그 원천이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고통을 겪나! 불쌍도 해라. 어서 참회하고 복을 지어 내생을 기약해야지!" 소수인과 약자가 겪는 불이익과 고통에 대한 선량한 불자님의 인과법문이 시다. 틀린 말씀은 아니다. 여러

세속적 관념 잦대로 인과법 풀려고 말라

아니다. 무엇이 진정 복이고 재앙인지는 절대 단정할 수 없는 것. 영혼의 성숙에 필요한 긴장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남다른 고(苦)는 특별한 복이다. 해탈에 접근하는 성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복일진대, 세속 복 관념의 잦대로 인과법을 안이하게 풀지는 말아야 한다. 자칫 분의 아니게 소수에 대한 다수의 오만과 무지, 천박함을 이어가게 된다. 그럴 때는 동정심마저 오만과 편견의 표현이 되어 버린다.

불교인은 인과법을 깊이, 조심스럽게 음미해야 한다. 인과와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인과법의 상식적 풀이는 자칫 다수나 강자만을 편드는 이론으로 전락한다. 부처님 도량이야말로 소수와 다수가 평등하게 만나는 곳이여야 한다. 장애인 올림픽에 대한 무관심과 한국 사찰의 높은 계단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어인 일인지.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도선사·봉은사·감로사 등 10여곳 3천배 철야정진 '열심'

참불자의 길

절수행 하기 좋은 사찰

3천 배·1만 배 등 정진(철야)법회를 마친, 절 수행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도선사와 봉은사, 그리고 부산 감로사 등 여러 사찰에서 해마다 '3천 배 철야정진 법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 절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재가불자 전문도량이 문을 열었고, '1만 배' '10만 배' 등 개인적으로 원력을 세워 수행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절 수행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 그러나 3천 배·1만 배 등을 하겠다고 원력을 세워보지만 초보자 일수록 몸과 의지가 안 따라 주어 업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사찰에서 마련하는 정진법회에 동참하면 진지한 정진 분위기에 의욕이 생기고 참가자들의 원력이 하나가 돼 의외로 쉽게 성취할 수 있으며 그 환희심 또한 매우 크다.

여러 사찰에서 정진기도법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사찰은 마산 금강정도사이다. 이 사찰에는 여성 사찰과 달리 직장인들이 숙식을 하며 수행한다. 퇴근 후 3~4시간 정도 절을 하고 잠을 잔 다음 새벽에부터 출근하기 전까지

또 다시 절을 한다. 수행에 동참하는 불자들은 하루 평균 10여명으로 대부분 인근 공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다. 이들은 3천 배, 1만 배 등 나름의 원력을 세워 절을 한다. 금강정도사에서 지금까지 절 수행을 마친 불자는 약 3천 여명. 이 중에는 수행에 매료돼 출가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055-247-7382).

서울 삼각산 도선사는 대표적인 절 수행도량이다. 도선사는 석불전 앞에 기도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24시간 개방하고 있는데, 매일 말일 철야정진기도를 한다. 특히 입시철이나 성도일에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불자들이 참여한다. 그래서 도량 곳곳에서 끊임없이 절을 하는 많은 불자들이 수행분위기를 더욱 높이고 있다(02-993-3161).

서울 봉은사와 부산 감로사는 해마다 3천 배 철야 정진법회를 연다. 봉은사는 4



◇ 3천배 철야정진 법회'에 동참하면 진지한 정진분위기와 참가자들의 원력이 하나가 돼 성취가 잘 되고 환희심도 크다. 사진은 대구 깃바위 철야정진법회에서 기도하는 불자들.

마산 금강정도사 직장인 숙식기도

양평 법왕정사 재가전문 도량

일 저녁 7시부터 3천 배 철야정진을 한다. 이 정진은 지난 84년 영암 스님이 주지 재임시 미륵불조상을 발원하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02-511-6070).

감로사는 40년 전부터 매년 음력 2월 4박 5일 동안 '3천 배 참회기도법회'를 실시한다. 오는 11일 철야정진법회를 실시하는 구룡사도 수시로 절 수행을 할 수 있는 도량이다(02-575-7766).

또한 유명 '기도처' 성지에서 정기적으로 철야정진 절 수행을 실시하는 사찰도 적지 않다. 통도사 부산포교원의 경우 매월 경주 부흥사로 '108배 경주남산 기도법회'를 떠난다(051-816-2241).

이밖에도 서울의 능인선원, 법륜사, 선학원과 대구의 법왕사, 관음사 등에서나 절 수행을 권장하고 있고, 불교대학이나 직장기능법회에서 원력을 세워 서로 격려하며 단체로 정진법회를 갖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재가불자 수행 전문 수행도량도 생겼다. 지난 4월 문을 연 양평 법왕정사는 매주 토요일 직장인을 위한 철야정진을 한다(031-771-7745).

지난해 봄 대구 깃바위 철야정진 법회에 참석했다는 불심화 보살(35·안양시 산촌동)은 "평소에는 3천 배를 하고 싶어도 일 때문에 잘 안 된다"면서 "대중과 함께 정진하면 정진의 힘으로 힘든 줄 모르고 3천 배를 성취 할 수 있고, 마치고 난 후 서로의 따뜻한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환희심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정진법회 참가를 권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ap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지금 학계의 풍향계는 동양으로 쏠려있다. 그러나 정작 동양의 것이 우리 것이라고 자신있게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주저한다. 이것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어쩌면 동양은 우리에게 이전 낯선 타인으로 여겨지게 되려하고 있는 저 너머 출일이 통째로 비무장의 동녘이다. 그래서 '동양, 우리 고향을 다시 보자'라는 작곡의 구호는 우리의 삶결과 어긋나며 허공속으로 맥없이 흩날린다.

이 가운데 선(禪), 그것은 분명 다양한 동양 전통의 한 본령. 여기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렇지만 이제는 선이 선다워야 할 시기에 놓여 있다. 더욱이 그것이 새로운 천년을 지탱할 정신적 자원의 보고라고 누구나 믿는다면 말이다. 선의 명상정통을 실행으로 풀어보

자. 언제나 우리 마음은 수축과 팽창의 연동 운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 마음도 세월의 흐름 따라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한다.

그 운동의 실상을 보자, 누구도 경험해본 적이 우리 마음은 놓으면 어긋나고 바로 잡으면 제자리 잡는다. 이것을 통제하는 기제가 바로 명상이다. 산란하고 혼란해진 마음을 가리앉히는 작업으로서의 명상. 그리고 그것의 효과로서 마음의 가벼움. 이 때 가볍다는 것은 통시에 우리 마음이 무겁다는 것과 짝이 맞는다. 그럴 무게를 결정하는 무언가가 있는 셈이다. 이 무게를 불교에서는 욕망 또는 번뇌라고 말한다. 이것을 정리해 놓자. 마음에서 살아있는 욕망과 번뇌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팽창한다. 반대로 정화되면 그 만큼 우리 마음은

신비로움 벗어나 일상화-보편화

32 선과 교육(5)



서명석 외교통상부 국제협력관

수축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지만, 그러나 선에서의 명상은 우리들이 포함 수 없는 마음의 일어난 즉 욕망과 번뇌를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어디까지나 선의 명상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 모습일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명상이 살아 숨쉬 수 없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 자체에 그대로 달라붙을 수 있도록 가공하여 객관화하고 일반화 하는 일이 우리를 늘 성가시게 한다.

또한 이것을 교육과 바로 연결시키면 더욱 심난하다. 다음과 같은 교실 장면을 연상할 수 있다. 한 교사가, 명상이 아이들의 내면을 정화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알고 그가 말고 있는 반 아이들에게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였다. "얘들아, 오늘 명상 시간이다. 자, 명상." 아이들은 담담의 지시에 따라 눈을 감는다. 그러나 실제 아이들이 명상을 하는 건지 상상을 하는 건지 아닌 건 명상을 하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아니 실제로 그 시간을 잠자는 시간쯤으로 여기는 아이들도 많았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교사가 질문을 계속한다.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저 구석 한켠에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원래 자리하고 있던 곳에 즐거운 일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다음에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가득 채워주세요.”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운동을 장려하고 있었다.

두 교사가 명상에 접근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르다. 하늘과 땅만큼, 지금 선이 산중불교와 신도중심불교로 일반인과 유리되어 있듯이, 이제 선이 한 동양 전통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신비화와 종교화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일상화 내지 교육화해야 하는 화두를 우리 모두에게 남기고 있다.

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알기쉽게,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x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스님의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스님의 자세한 범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찬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합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길!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I.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II.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